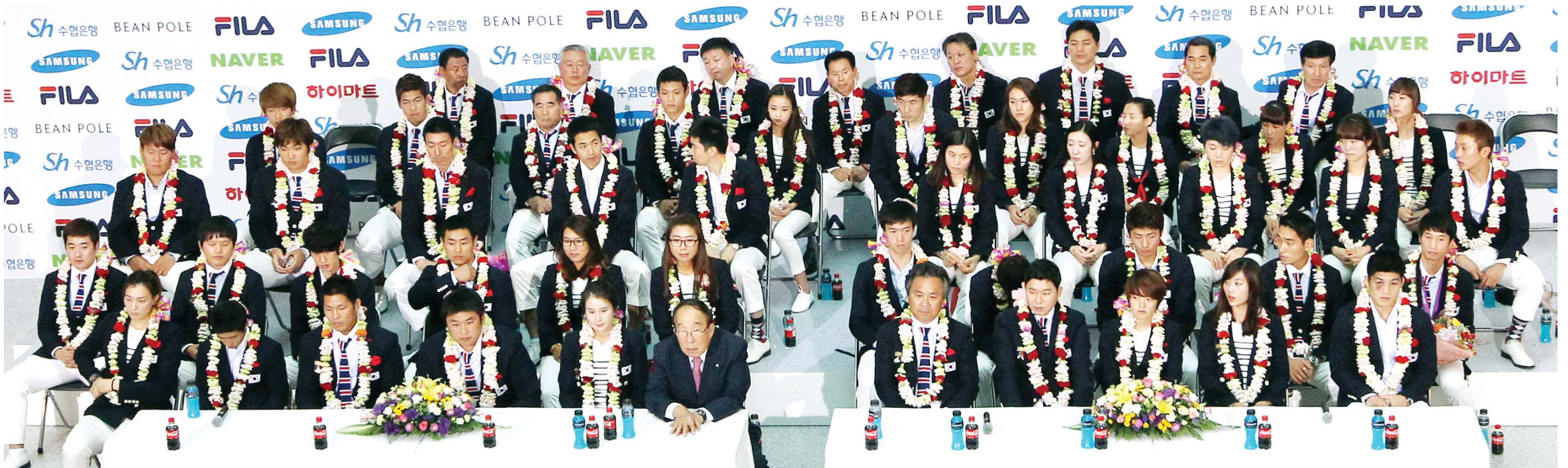




2012 런던올림픽에서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 한국 선수단이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기흥 선수단장을 비롯해 체조 사상 첫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양궁 2관왕 기보배 등 영광의 얼굴들이 인천공항 내 밀레니엄 홀에서 해단식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풍당당’ 런던 영웅들 돌아왔다

■ 시민들 환영 속 귀국 기자회견·해단식

기보배 “운이 좋았다는 악플에 속앓이”

양학선 “새 기술 만들어 리우서도 금”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역대 원정 올림픽 사상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한국 선수단이 위풍당당하게 돌아왔다.
 이기흥 선수단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 선수단 본단은 14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다.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송대남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황경선, 한국 리듬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결선에 진출한 ‘요정’ 손연재 등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나눠 타고 도착했다.

런던올림픽 22개 종목에 참가한 한국은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에 올라, 목표였던 ‘10·10’(금메달 10개 이상·종합 10위 이내)을 무난히 넘어섰다.
 역대 최다 금메달을 기록한 2008년 베이징 대회(금 13개)와 같은 수의 금메달을 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금 37개)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역대 최고 종합순위인 1988년 서울 대회(금 12·은 10·동 11)의 4위를 넘어서는 못

했지만 종합 5위를 달성해 원정으로 나선 올림픽에서는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했다.
 입국장에서 간단한 환영행사로 팬들에게 인사한 선수단은 공항 내 밀레니엄홀에서 해단식 및 기자회견을 했다.
 본단에 앞서 입국한 양궁의 기보배, 오진혁, 사격의 진종오 등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다.
 양궁 2관왕을 달성한 기보배(광주시청)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며 “런던에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애를 많이 먹었지만 선수들이 잘 준비했기에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간 악플 때문에 속앓이를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방글방글 웃으며 말을 이어가던 기보배는 “개인전 금메달이 운이었다는 댓글을 보고 속상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기보배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밤이면

나방과 싸우고 모기에 뜰리며 훈련한 결과다. 그런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씩씩하게 말을 마쳤다.
 한국 체조 사상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한체대)은 벌써 4년 뒤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내다봤다.
 양학선은 “체조 종목은 올림픽이 끝나면 규칙이 바뀌는데 그 규칙에 잘 적응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리듬체조 결선에 오른 손연재는 “곤봉에서 실수가 있어서 아쉬웠지만 결선 무대 경험만으로도 좋았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며 “리듬체조를 많이 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힘이 났다. 덕분에 후회없이 연기를 펼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런던에서 못다한 소감을 전한 선수단은 여의도공원으로 이동해 ‘한영 국민대축제’에도 참가했다. /연합뉴스

“축구 가장 재미있었다”

갤럽 조사, 펜싱 ‘신아람의 눈물’ 아쉬운 경기 1위

사상 첫 동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룬 축구가 2012 런던올림픽에서 국민이 가장 흥미있게 본 경기로 꼽혔다.
 한국 갤럽은 13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511명에게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가장 흥미있게 본 경기를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70.3%·2명까지 복수응답)이 축구 경기가 답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결선에서 5위를 기록하며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은 손연재의 리듬체조가 19.8%로 2위를 차지했고, 기보배·오진혁이 쓴 화살이 활시위를 떠날 때마다 국민의 가슴을 졸였던 양궁(18.5%)이 3위에 올랐다.
 초반 오심 판정에도 불구하고 금 2, 은 1, 동 3개의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펜싱(17.5%),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일궈낸 양학선의 기체체조(10.1%)가 뒤를 따랐다.

아쉬운 경기 1위로는 ‘မ်취버린 1초’로 신아람이 눈물을 흘렸던 펜싱(40.1%)이 꼽혔다.
 세계 강호들을 격파했으나 메달 사냥에 실패한 배구(17.4%), 핸드볼(17.2%)도 3위 안에 들었다.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로는 26.1%의 국민이 선택한 손연재가 1위에 올랐다. 일본과의 축구 3~4위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박주영(25.5%), 한국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24.0%)이 간발의 차이로 2, 3위에 자리했다. 끝으로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를 기록하며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한국 선수단의 성적에 대해 국민들은 86.8%가 ‘기대 이상의 성적’이라고 응답했다.
 ‘기대만큼의 성적’이라는 응답은 11.5%, ‘기대 이하 성적’이라는 1.0%였다. /연합뉴스

일본에 ‘독도 세리머니’ 해명 논란

日 언론 “한국에서 사죄문 보냈다”

축구협 “통상적 문서, 명백한 오보”

대한축구협회가 ‘박종우 살리기’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 13일 김주성 축구협회 사무총장이 박종우를 만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듣는다고 밝혔다. 보화를 목적으로 박종우를 공식행사에서 제외하는 등 애를 쓰던 축구협회가 첫 공식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박종우는 지난 11일 일본과의 축구 3~4위전을 마친 뒤 ‘독도는 우리땅’이 적힌 종이를 관중석에서 받아 들고 그라운드를 뛰었다가 ‘정치적 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메달 수여식 참여 불가 통보를 받았다.
 축구협회는 박종우의 세리머니가 의도성이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리 피켓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관중석에서 넘겨받았다는 점을 밝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박종우의 ‘억울함’을 대변해 줄 보고서를 작성해 빠르면 16일 이전에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할 예정이다.
 징계에 대한 열쇠는 현재 FIFA가 쥐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FIFA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박종우가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겠다”며 “당시 행위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설령 징계를 받는다 해도 국내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선수를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세리머니와 관련해 일본축구협회에 사죄문을 보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일본축구협회에 전달한 문서가 “박종우의 세리머니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나 계획성이 없는 우발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통상적인 문서”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축구협회가 일본축구협회에 ‘사죄’를 전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올림픽 축구 대회 도중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유감(regret)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는 통상적인 외교 수사가 ‘확대 해석’된 것이라며 일본 언론의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다이나미 구니야 일본축구협회장은 하루 전인 13일 일본의 취재진에게 대한축구협회가 박종우의 세리머니와 관련해 “미안하다.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14일 일본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고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독도 세리머니’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일본에 사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12 런던올림픽 축구국가대표팀 동메달 획득 환영 만찬이 열렸다. 독도 세리머니로 인해 모습을 보이지 않던 박종우(가운데)가 이날 환영만찬에 참석, 동료들과 함께 기념촬영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 51건 ... 정치적 이유는 1건도 없어

올림픽 메달박탈 사례

올림픽에서 메달이 박탈된 사례는 총 51건이다.
 나이를 속인 사례가 1건, 판정 등에 대한 항의로 시상식에서 메달을 던졌다가 박탈된 사례가 2건이고 나머지 48건은 약물 복용 때문이다. 정치적 시위 등의 이유로 메달을 박탈당한 경우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정치적 시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육상 남자 200m 결승에서 1.3위로 끝난 미국의 흑인 선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인종 차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상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하늘로 내뻗는 행동을 취했다가 선수촌에서 쫓겨나는 제재를 받았지만 메달을 박탈당하지는 않았다.
 약물 복용 외의 이유로 메달이 박탈된 뒤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 3가지뿐이다.

FIFA 징계 수위	처벌
박탈	박탈 징계를 받은 협회, 선수는 메달이나 트로피 등 성적의 상징물과 함께 우상으로 얻게 된 모든 이익을 빼앗김
벌금	300스위스프랑(약 35만 원) ~ 100만 스위스프랑(약 11억 원)
건책	규정 위반 사실을 공식적인 문서로 각 협회와 개인에 통보
경고	규정 위반 사실을 알려 추후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알리는 수준

자료/ FIFA

레슬링의 아라 아르라하미안(스웨덴)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시상식에서 메달을 내팽개쳤다. 가 페어플레이 정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돼 동메달을 뺏겼다.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남자 유도 동메달리스트인 이브라힘 사마도프도 체조 차로 동메달에 그치지 메달을 집어던지고 시상식 도중 나가버려 메달을 반납해야 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여자 기체체조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덩광샤오는 출전 기준연령인 16세보다 낮은 14세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메달을 박탈당했다.
 뺏긴 메달을 돌려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스웨덴의 게마르 요한손은 1952년 헬싱

키올림픽 복싱 결승에서 에드 샌더스(미국)를 도망 다녔다는 이유로 은메달을 박탈당했다. 요한손은 도망 다니게 아니라 상대 선수를 지지게 만들려는 전략이었다고 항변했고 1982년 메달 돌려받았다.
 몇몇 메달리스트들은 절도, 모욕 등의 행위로 제재 위기에 처했지만 메달을 박탈당하지 않은 등 IOC의 징계 기준은 많은 부분 애매하다.
 블라디슬라프 코자키에비츠(폴란드)는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소련 선수와 우승을 다투면서 홈 관중들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았다. 코자키에비츠는 금메달을 목에 건 후 야유를 퍼부은 소련 관중에게 ‘주먹 감자’ 제스처로 앙갚음을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수영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트로이 댈비와 동료는 경기 후 호텔에 술을 마시고 벽에 걸려 있는 석고 사자를 훔쳤다가 한국 경찰에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연합뉴스